

사순 제 5 주 일

기도서. 270 면

제 1 독서: 예 레 31, 31-34

제 2 독서: 히 브 5, 7-9

복 음: 요 한 12, 20-33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3201

□ 강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김 영 신 신부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 쾌락, 명예, 권력을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더우기 인간이 인간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위해 많은 돈과 정력을 소비하는 경우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다.

부유한 사람의 하루 저녁 술값보다 적은 노동자의 월급은 양심있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나름대로의 피로움과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다. 왜 이렇게 고통의 와중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누구나 당해야 할 죽음은 악으로만 남아 있고, 세상은 이러한 비극의 연속이란 말인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 끝에 즐거움을 소유했는가를 보았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모두 어려움과 고통,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 생명이 아님을 배워야 한다.

기다리던 메시아, 하느님의 증,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했는가? 하는 물음은 세속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의문은 남아 있다.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복음말씀으로 전해준다. 즉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비유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들어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 백성의 주님이 되셨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분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만일 예수의 죽음에 부활이 없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존재로 남아 있을까. 또한 수난과 죽음없는 부활의 영광은 우리와 얼마나 무관할까. 그리스도는 수고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한 형제들이다.

사순절 중반에 접어드는 오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심을 다시 새겨야 한다. 우리는 현세의 일시적인 안일과 쾌락 때문에 생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인간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 바쳐드리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되도록 하자.

<창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포기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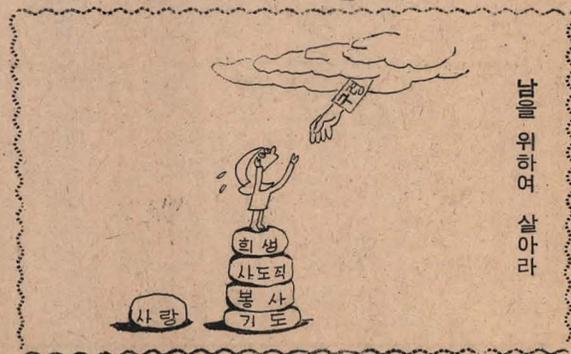
병원엘 가면 사람들이 온통 환자로 보인다. 그러나 병석에는 시장골목에 들어서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하루 하루의 일과가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지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진다.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던지 살아야겠다고 강렬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우리는 살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산다는 일은 힘든 일이다. 더우기나 중환자실에서 거의 기구에만 의지하고 숨을 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남들은 하기 쉬운 말로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투자효과만 생각한다면 포기하는게 현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도 과정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며, 아프기도 하고 끝내는 죽어야 한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죽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죽는날까지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성적이 뒤지는 학생이 아무리 노력한다해도 지능이 모자라서 별 진전이 없다. 그래도 교사는 그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다. 그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요즘을 학생들이 거절어졌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한쪽에서는 묘한 이론을 내세워 교육의 한계를 말한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교육의 효과를 여름에 모실어 가을에 추수하듯이 기대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한다. 씨앗을 심고 날마다 땅을 파서 그것이 얼마나 자라는지를 확인하려드는 사람은 바보다.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게 인간의 성장이다. 포기하려거든 자신의 직책이나 포기하고 그만두는게 현명하다.

숲 정 이 산책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결의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는 노동현장에서 관권의 개입이 점점하고 있는 한편 노동자들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주목하며 근로자의 날을 맞아 우리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본 결의문의 요약이다.

1. 우리는 한국노총이 안고 있는 병폐를 제거한다는 구실로 당국이 취한 이른바 노동계 정화조치가 도리어 노동운동의 자율적 기능을 크게 저해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요즘 노동현장이나 노동조합 사무실에 근로감독관 이외에 정보 수사요원들이 출입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섭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노동문제를 노동부장관의 책임하에 근로감독관에게 전담시킴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기능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공권력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노동조합 간부 등이 순교교육에 넘겨져 혹독한 처벌을 받은 사례,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 선교회원들이 수시로 수사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타당하거나 해고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례 등은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내세운 이른바 새 시대의 실상을 의심케 하는 비극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 비윤리적, 반도덕적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저임금 정책과 집단해고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른바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를 표방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발상은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통, 남화전자, 원풍모방, 이천전기, 페어차일드 등 일부 회사들이 노조간부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시킨 사례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당국이 회사의 책임자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저임금 정책과 편파적인 노동행정의 시정을 요구한다.

4. 우리는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의 각종 독소조항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만능의 사고방식은 그동안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을 준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교훈을 거울삼아 산업사회의 평화와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보호함은 물론,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월 10일 한국 정의평화위원회

여산 숲정이 성지개발

—순교의 얼을 함께 기리자—

박 창 신 신 부

한국 천주교회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백여년 동안 모진 박해의 회오리 속에서 성장해 왔다. 이렇게 모진 박해가 있자, 충청도에서 살던 신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은신처를 찾아 두메산골 대둔산과 천호산 기슭으로 피신하여 살았다.

박해 말기에는 신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박해가 끝나자 천호산과 대둔산 중간 지점인 되재(승지)에 호남의 첫 본당이 세워졌다. 이때 이조 철종이 1864년 1월에 승하하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다.

초기에는 천주교에 완화책을 썼으나, 후에 돌변하여 병인년(1866년)에는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면서 병인대 박해가 시작되어 전국은 순교의 피로 얼룩졌다.

여산은 지리적으로 동쪽엔 천호산과 대둔산의 깊은 산골, 또 다른 위치에는 평야가 있어, 산골과, 평야를 잇는 물물교환의 장소였고, 호남의 관문이었다.

삼한과 백제시대에는 지량수현이었고, 이조 태종 원년에는 여산현으로 속중 25년(1699년)에는 부(府)로 승격되었다. 한편, 여산 부사는 영장을 겸했으므로 세도가 당당했다.

전라도 상단(현 전라북도)에는 무주부, 남원부, 여산부만 있었으니, 여산은 막강한 정치권력을 갖고 있던 큰 고을이었다. 척화비와 함께 전국에 번진 박해령이 있자 여산 부사는 동쪽 산중에 숨어 살던 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며, 상부에 충성을 바치기 위해 폭행은 날로 심해졌다. 특히 무진년(1868년) 가을은 더욱 난폭하여 23명이 순교하였고, 병인년에는 2명, 정묘년에는 1명이 순교했다고 치명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무명 순교자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곳에서 순교한 분들의 무덤은 현재 천호(용추네)공소 뒷산에 있다.

이 여산을 위해 서울교구 화양동 본당 이 바울라 자매는 순교 선열들의 피로 얼룩진 여산 순교 성지를 매입해 주었고, 많은 분들의 협조로 석축과 돌계단을 시설할 수 있었다. 또한 성지작업을 위해 어린 주일학교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 주었다.

앞으로 이 성지에 순교기념 십자가, 제대, 순교자 명단, 순교록,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시골 여산본당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힘에 겨워 순교자 현양사업에 회사할 분을 찾고 있다.

현재 여산에는 동헌, 우터, 척화비, 백지사터, 배다리 순교지, 뒷말 순교지, 여산 숲정이 등을 참배할 수 있다. 순교자를 현양함은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이 고장의 장한 순교자들의 얼을 기리고 그분들의 높은 뜻을 함께 신앙했으면된다.

생 산 사 원 모 집

당사는 서울 소재 수출품 봉제완구(인형) 제조회사로 생산사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아래 장소로 연락 바랍니다.

모집인원: 여자 ○○명
자 격: 18세 이상 여성으로 무경험자도 가능
전주 연락처: 전주 전화 ②2836회관수(시문)
※ 기술사 전원 수용하며 야간학교 취학이 가능함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619

여 광 물 산 주 식 회 사

전화 854-6881~3 이사 최영식(바로로)

의료과학기술계·쌍크·온수기

동남 의료 과학상사 백곰표 쌍크 상사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전화 ③6900 야간⑥0496
김 낙 균(요셉)

리틀포인트·왕구·동양매
듭·양초공예 수강합니다
보세 우산·양산 있습니다

데레사 수예점

조 윤 수
서 테 레 사
전주시 중앙동 1가48-1
(홍빈관 앞)
☎ ⑤ 0 8 1

ECCLESIA

□ 부안군 축협사건의 처리 과정을 주시한다

피해 농민들과 농민회원들은 부안군 축협사건에 대하여 당국의 처리과정을 주시하고 있는데, 문제의 발단은 피해자의 진정에 의하여 알게 됐다.

피해농민과 농민회원, 기관원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 십명에 이르고 있다 하는데, 어느 개인으로부터 도입 송아지를 사육하도록 주겠다고 천여만원의 받아 착복했다는 호소에 따라 지역에서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축산정책의 잘못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했던 사건으로 보며 활동대책을 세우고 있다.

당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정의,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 월명동 사순절 묵상의 밤 개최

한창 사순절 절정을 이루는 요즘 군산 월명동 본당에서는 사순시기를 '보내는 신자들의 신앙적 자세의 소극적인 면을 탈피하고, 능동적인 삶의 신앙을 다져보고자 서울교구 평신도 이 배구 강사님을 초빙하여 21일에서 23일까지 전신자들이 사순절 묵상의 밤을 갖었다.

월명동 본당 신자들의 열의에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 묵상으로 보다 뜻깊은 부활절을 기대해 본다.

□ 천상에 보화를 쌓는 이들

지난 숲정이 주보 485호 3면에 「이 작은 그리스도에게도 불나물 바꾸니를...」이라는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랑과 온정이 담지 했고, 특히 성심여고생들의 적은 용돈을 모아 사경을 헤메고 있는 작은 이웃을 위해 사랑의 온정을 편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학생(이강순)은 골수암의 악화로 이미 사망하여 조의금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아름다운 한토막의 이야기는 냉랭하기만한 우리 이웃에게 선행의 의욕을 북돋아 준 사랑의 행위였다.

함께 이 학생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자.

□ 가톨릭 신앙(예비신자 교리) 강좌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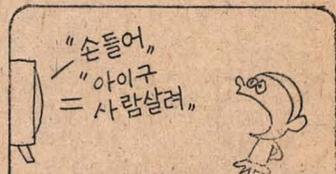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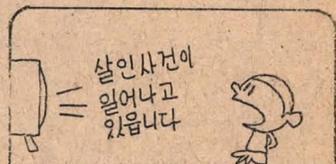
메마른 곳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리라”(이사야 44,3)

- 가톨릭교회(천주교)에 입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 신앙강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을 위하여 통신교리도 실시합니다.
- 가) 신청기간 : ① 제 1차-3월 23일~4월 25일 ② 연중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나) 신청방법 : “예비신자 등록 신청서”(가톨릭센터에 비치되어 있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 접 수 처 :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 교육부
- 라) 강좌시작 : ① 제 1차-5월 9일 <일> 오전 10시
② 개별적으로 개강일자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자들은 가까운 이웃에게 이 교리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것은 가톨릭센터 교육부 전화 ⑥004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심이(451)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척본(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째즈 · 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음원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①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복은행 노송동지점 앞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 · 영국모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버킹검 런던포그

(주) 유 율리안나
간이복 · 성인용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아동용 · 주니어 삼화약국 옆
위크엔드 전화 ② 4451

코오롱 맨스스타
호성 맨 하탄

전주 특약점
바바리 · 콤비 · 잠바 · T
셔츠 · 남방 · 사파리 · 바
지 · 맨하탄 Y셔츠 · 넥
타이 ★ 국민카드 가맹점
전화 ② 4561
김문중(아드리아노)

금 · 은 · 보석 · 시계

일성당

정음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베드로(핀통)
남베로니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영화 '구세주' 필름이 사목국에 있습니다: 각 분당은 사순절동안 이 필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중 후원회 '책 보내기 운동' 전개: 신자들은 군에 보내는 '책 보내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3차 레지오 연수회 개최: 일시-4월 4~5일, 장소-가톨릭센터, 대상-1코미씨움 산하,
4. 평일 임원회의: 일시-4월 3일 오후 2시, 장소-센타 338호실
5. 강 인천 신부님의 모친 한 복속(테레사)님께서 선종하심: 1982. 3. 22. 14시에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기도중에 기억해 드립니다.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다니엘 3장~13장, 요한 8장
1. 사도회 상임위원회: 4월 3일(토) 오후 7시 사제관
 2. 프란치스코 형제회 일일피정: 28일(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강당
 3. 아치에스 행사: 28일(일) 오후 2시 성당
 4. 판공성사 일정: 3월 30일(화)-진복·인후, 31일(수)-금암·경원·교사, 4월 1일(목)-중노중·고·대학, 2일(금)-태평1·2·서노1·2, 3일(토)-주일학교, 기타, 4일(일)-공소 잔중리에서 3시(넌담 마치고 성사보세요, 81년도 발행한 성사표는 무효입니다)
 5. 단식권고일: 4월 2일(금) 회개와 보속의 단식권고일 4월 4일(일) 사랑과 나눔의 헌금일
 6. 영세일: 부활만 4월 10일(토) 오후 7시 미사전에 6시까지 대부모 동반 참석
 7. 주일학교 성지순례: 장소-서울 양화진(철두산)성당 어린이대공원, 과학관, 페-5일 5일, 회비-어린이 3천원·어른 6천원 ※ 4월 11일까지 신청 마감
 8. 교리교사 모집: 아동 교리교육에 관심있으신 분
- 지난주 불헌금: 700, 907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판공성사 일정: 29일-인후동, 30일-중노1동, 31일-신고리·황운리·왕정리·다리리·신원리 공소, 4월 1일-중노2가동, 2일-남노송동, 3일-할아버지·할머니, 성사시간-오전 10~12시, 오후 3~5시, 저녁 7시30분~9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자모회 총회: 30일(화) 10시30분 미사후
 4. 아파트공소 돕기운동: 부채때문에 어려움, 협조바람
 5. 금주의 성경읽기: 부가복음 전체
 6. 수녀들의 베소라 성서강의: 29일 오후 2시~4시
 7.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8. 꾸리아 회의: 오늘 오후 2시(간부 전원 참석바람)
 9. 학생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10. 남자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11. 쟈 모임: 토요일 오후 5시
- 지난주 불헌금: 317, 00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인철
 보좌 신부 안철상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월례회: 미사후 신부님 회의실
 2. 부녀회 월례회: 미사후 2층 회의실
 3. 분당 판공성사: 오늘 저녁 7시 미사후
 4. 부활맞이 대청소: 4월 5일-뜻있는 분들의 헌수바람
 5. 가정의 귀영등이 교리반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6. 예비자 특별교리(예제자): 4월 1일부터 9일까지
 7. 유아영세자: 4월 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지난주 불헌금: 590, 62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준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29일(일) 어머니미사 후
3. 피정: 4월 5일(월) 오전 8시20분~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터, 회비-1천원, 4월4일까지 접수
4. 보좌신부님 송별식: 오늘 공식미사 후, 수고에 감사
5. 가정방문 및 반회합: 26개반을 마치고있습니다
6. 선교분과 회의: 오늘밤 8시, 봉사분과: 31일 밤 8시
7. 4월2일 단식헌금을 4일 내주세요: 4일-사랑과 나눔의 헌금(인성회), 9일 단식(예루살렘 복구)헌금,

8.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장동주 ②교회구 수난복음-신부님·강기연·조성호
- 지난주 불헌금: 416, 31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1. 성삼일 전례 및 판공성사 일정: 별지 참조 바람
 2. 예비자 특별교리: 29일부터 4월3일까지 저녁7시30분
 3.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이번 판공성사때 교무금 6월까지 완납합니다
 5. 사제양성 후원금 신임 바람
 6. 부활 성가연습: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7. 아치에스 행사: 오늘 오후 2시 분당에서
 8. 부활 꽃 봉령: 수녀님께 접수 바람
 9.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함문권 ②강태호
- 지난주 불헌금: 222, 930원 교무금: 258, 000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⑨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요양회 월례회: 28일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4월 4일 공식미사 후
 3. 누갈다부녀 월례회: 4월 3일 오전 10시
 4. 예비자교리: 공식미사 후, 주요일 오후 2시, 밤 8시
 5. 직장인·학생 판공일정: 3월 28일~4월 3일
 6. 부활 성가연습: 29일 오후 8시
 7.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 아침미사-6시30분, 공식미사-10시, 어린이 미사-오후 3시, 밤-7시30분, 평일: 오후 7시30분
 8.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이원일·홍성조, 기도-이규철
 9. 미사안내: 이경희·권영순·서숙자·정금순·김상옥
- 지난주 불헌금: 523, 112원

(전동)

전화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2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송두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부활전 9일기구: 치명자산미사, 24일부터-오전 5시 30분(분당 아침미사 없음, 주일은 제외)
 4. 짧은이 성지순례(4월25일): 철두산·미리내, 접수중
 5. 신축기금: 이종두(100만원), 조기형(50만원), 이덕수(10만원) 신축기금 빨리 신임하여 주세요
 6. 춘계판공: 28일-아동교리반 오후 2시, 30일-동·서교동, 31일-동·서완산동, 4월1일-풍납·노송동 2일-전동·중앙·경원·다가동·기타, 3일-모든 공무원 ※ 교백성사: 10시~12시, 오후 2시~6시
 7. 쟈 모임: 토요일 오후 5시(보좌신부님 응접실)
 8. 아치에스 행사: 28일 오후1시, 레지오단원 참석바람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우, 독서-①이현재 ②범덕배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희 ②장금배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김동주 ②이승호
- 지난주 불헌금: 540, 480원

(파티마)

전화 ②97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재경분과위원회: 오늘 밤 미사후에 있음
 2. 기사회: 4월 3일 오후 2시
 3. 성모회: 첫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4. 꾸리아회: 4월 11일 부활주일 오후 2시로 연기
 5. 판공안내: 4월 1일부터현리공소
 6. 예비자(영세예정자) 면접: 4월 2일~3일에 합니다
 7. 오늘과 다음주는 분당 판공일입니다
 8. 갱생원에 헌옷을 냅시다: 봉사분과위원회
- 지난주 불헌금: 201, 845원 교무금: 529, 000원